

이 땅과 문화유산의 애정어린 편력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언젠가 「출판저널」에서 ‘어느 땅을 여행한 사람은, 그곳을 여행하려는 초행자들에게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줄 의무가 있다’는 글귀를 읽고 깊이 공감한 적이 있다. 그것은 길떠남에 대한 호기심이 무작정 낯선 곳에 내려 다리 쉽게 보았다는 건수 채우기나 철따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명승지 관람붐에 휩쓸려 건성건성 다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주체적·입체적으로 내 발길 닿는 곳 하나하나를 제대로 느껴보고자 하는 욕구이기도 하다.

사물을 보면서 무언가를 ‘내것’으로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세상을 살 만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여행을 자신이 연출하는 한편의 영화라 하나 보다. 오로지 자신의 수고로움과 감각의 깊이로 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새로움이고 설레이는 가능성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유홍준, 창작과비평사, 1993)는 앞서 여행(답사)한 사람으로서 길 떠나려 신발끈을 추스리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와 아울러 꾸짖음도 잊지 않는 책이다. 꾸짖음이란 이리저리한 훈계를 늘어놓아서가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우리 땅에 대한 애정없이, 얕에 대한 진정한 욕구나 상상력을 마음껏 열어보일 자세 없이는 감히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인데,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는 저자의 말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런 노력이나 애정 없이, 다채로운 경험의 과정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그저 나와 상관없는 풍경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미미한 일상을 부스럼처럼 등에 붙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는 미술사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유홍준 교수의 우리 땅, 우리 문화재, 우리 인간에 대한 강한 애정이 숨김 없이 드러나 있다. 문화재라 하면 사실 몇 번을 읽어도 알 수 없는 딱딱한 안내문이 심술궂고 사나운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서 감히 접근을 방해하는데, 저자의 평이하고 부담없는 문체는 그렇게 멀기만 하던 문화재와의 거리를 좁혀 우리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준다. 그래서 “어느 절을 가든 대웅전 기둥을 등에 대고, 또는 땀에 젖어서 앞에 있는 탑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황당한 찬사로 씌어진 문화재 안내문을 따라가는 것보다 몇천 곱 가치 있다”는 저자의 말에 이르러 우리는 안내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저자의 발길은 ‘남도답사 일번지’라 하는

강진·해남의 월출산, 다산초당 등을 거쳐 충남 예산의 수덕사와 경주, 양양의 낙산사, 관동지방의 폐사지, 문경 봉암사, 그리고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를 이룬 담양의 정자와 원림으로 하여 동백꽃이 세상의 허무처럼 똑똑 떨어진다든 고창 선운사에까지 닿는다. 그 많은 길을 거쳐 나오면서 저자는 유물의 형태상 특징과 아름다움을 어려운 전문용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답사지를 눈으로 따라다니던 독자는 내 땅의 흙 한 줍, 풀 한 포기까지 소중해져 가슴에 따뜻한 물살이 가득차 오르기도 하고,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인간의 영욕으로 왜곡된 자리에 앉혀져 있는 문화유산을 볼 때면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즈음에 이르러 독자는 저자의 이끌림으로 하여 “모르고 볼 때는 낯선 남의 땅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알고 보면 내 나라의 땅, 우리의 땅으로 느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랜만에 괜찮은 읽을거리를 만나서 주위사람들에게 수더분히 내밀어도 보고 권해도 본다. 그래서 우리 국토 어디를 가도 맞닥뜨리게 되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에 우리 모두 깊은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이다.

허영숙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광야에서의 사색」

‘나에게 문화와 삶은 극적으로 일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기원은 오만하다.’

1950년대 허무주의의 왕초였던 고은시인이 며칠 전 시력 35년과 회갑을 기념하는 문학의 밤 행사를 가졌다. 위에 인용한 말처럼 그는 오만하게 우리앞에 서 있었다. 30여년의 세월을 거처오는 동안 허무의 세계를 치열한 역사적 실천으로, 다시 만인보를 짊어지고 백두산에 올라 민족의 미래를 노래하는 민족시인이 되어 있었다. 문화와 삶을 일체화시키며 30여년을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이.

그러한 시인을 갖고, 또 그러한 행사를 치르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이다. 시작 이외 소설, 평전,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1백여권의 저서를 갖고 있는 시인의 새 산문집 ‘광야에서의 사색’은 바로 그 행사장에 신간으로 선보인 책이다.

1, 2년 안팎의 것들을 묶었는데 시인의 최근

심경과 사색들이 솔직하면서 깊이있게 그려지고 있다. 가령 시인은 ‘영화 서편제 소감’의 시작을 ‘이따금 항구에서 들리는 뱃고동 소리와 영화는 그것이 분명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되 결코 사람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 슬픈 귀신과의 합작인지 모른다’로 썼다. 그런데 다른 페이지의 영화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뱃고동 소리아말로 나를 죽도록 사로잡았다. 나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리고 대상이 없는 질문을 한다. 도대체 뱃고동 소리를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영화에 대해서도 이 질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었다. 그런가 하면 ‘서사시 「백두산」은 사람을 총체화하는 것인 반면 「만인보」는 민족을 개체의 생명으로부터 귀납하는 수작이라고 해야겠다’며 80년 육군교도소에서 구상되었던 두 시에 대해 적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침없이 말문이 트이는 것은 여느 산문집과 다름없이 불교나 승려생활의 얘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출가와 환속에서 얻어진 소설 「화엄경」에 대한 인연도 재미있다. 운허스님이 춘원이 쓰려다가 못한 화엄경을 서사시로 쓰라 했는데 그가 22년 동안 완성하게 된 사연.

그러나 광야에서의 시인의 사색은 명료하다. ‘나는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쓰는 일로서 자꾸 젊어지고 있다.’ 이 말은 문학의 밤 행사때 그가 ‘나는 쓰는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외쳤던 고향과도 일치한다. 그의 웃웃 음치는 창작욕구는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나는 이책을 덮으며 그의 사색의 목표를 그의 목소리로 듣는다.

“나는 우리겨레의 교과서를 지향한다.”

박효순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879-71

「결정본 김지하시선집」

한국현대시사에서 ‘시인’이란 이름을 그토록 위대하고 거룩하게 끌어올렸고, ‘시인’이란 이름을 그토록 불온하고 위험한 위치로 내동댕이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김지하다.

최근 「결정본 김지하시선집」 전3권이 출간되었고, 판소리음반으로 제작하려던 ‘오적’ 등의 답시가 공론의 1차불허 후 재심 끝에 허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느

껴지는 것은 그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대시사가 보여주는 황량감이다. 아직 아무도 그의 생애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그 자신을 제외하면), 아직 아무도 그의 시 전체를 온전히 읽어낸 사람이 없는 현실. 오랜 투옥 생활과 금서의 시대를 거쳐 獄毒으로 생긴 병고를 다스리며 칩거하기도 했고, 진보문학 진영에서 제명당하기도 했지만 생명의 바다를 건너간 시인 김지하다.

소문처럼 그의 소식을 들으며 다시금 되돌아보는 지나간 시대는 그를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학사처럼, 여전히 부분적인 알리바이로 존재하고 있다.

「결정본 김지하시선집」 중 제2권인 ‘모란위 四更’은 바로 시인의 시학적 변화와 심화를 보여주는 ‘생명본성’에의 질문이 시작되는 시기에서 최근에 이르는 그의 시세계를 보여준다. ‘생명사상’의 중요한 시학적 실천으로 꼽히는 ‘검은 산 하얀 밤’ ‘별밭을 우러르며’ ‘선’ 등이 그것. 생명에 대한 외경과 그 실천의 시작업이라 일컬어지는 그의 시적출발은 ‘애린’이다.

두 눈도 두 손도 다 잘리고/이젠 두 발 모두 잘려 없는 쓰레기/ 이 쓰레기에서 돋는 것/ 분홍빛 새살로 무심결 돌아오는 애린(p. 133) - 그소, 애린 1

이봐/내겐 꽃시절이 없었어/꽃 없이 바로 열매맺는 게/그게 무화과 아닌가/어떤가/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이것봐/열매속에서 속꽃 피는 게/그게 무화과 아닌가/어떤가(p. 191) - 무화과

‘애린’이 자기 속에 있는 타자임을 확인하면서 새살로 돌아오는 생명임을 발견한다. 또한 열매 속에 핀다는 꽃을 통해 꽃시절 없음을 내부적으로 초월해 나간다.

밤이라도 이리 깊으면/밤이라 할 수 없겠지 //앞길 뒷길 다 끊긴 곳에//문득 노여움처럼 /난데없는 희망 한 오리(p. 243) - 만남

그리고 어둠에서 희망을 찾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한다. 그것은 생명이다.

길이 열린다. 살림의 길(p. 248) - 새벽길

어미가/새끼를 껴안고 울고 있다/생명의 슬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퓨터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퓨터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컴피아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

품/한줄기 희망이다(p.297)—생명

그러나 김지하라는 시인이 긴 병고를 이기고 '생명의 바다'를 건너는 시들은 이 시집의 뒷부분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기의 시들이다. 92년 9월에 발표된 이 시집의 마지막 '줄탁'을 보자.

내가 타죽은/나무가 내 속에서 자란다/나는 죽어서/나무 위에 조각달로 뜬다//사랑이여 /탄생의 미묘한 때를 알려다오(p.308)—줄탁

그가 삶의 위기 속에서 도달한 생명의 찬란한 깨침인 이 시는 이미 한국현대시사를 훌쩍 뛰어넘는 시의 진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병든 자신의 육신 속에서 찾아낸 생명의 바다가 보여준 절창이다.

이렇게 '모란 위 四更'에서 보여준 생명의 시학적 실천은 이제 그를 한국현대시사에 온전히 포용하고, 그의 생애를 시대의 알리바이로 완성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生命 그것은 이 시대 모든 사람의 위대한 부활노래이므로.

박옥기

전북 이리시 신동 744-17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책을 읽으면서 내내, 책을 덮은 후에도 답답함이 가슴을 내리누리고 있었다. 어떤 시원한 결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에...

혜완, 경혜, 영선. 이 셋은 대학 동창이다. 아이의 죽음으로 이혼한 혜완, 사랑없이 돈과 지위와 결혼한 경혜, 남편의 뒷바라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목숨까지 포기한 영선. 이 셋의 이야기가 그려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오랜만에 잡은 소설인데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해 나를 한없이 빠져들게 했다.

혜완은 학창시절 남자친구와 결혼한다. 스물다섯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그는 삶을 포기하기 싫어 편집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한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파출부에게 맡기면서. 하지만 어

느날 아침, 혜완의 눈앞에서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후 남편은 그에게 폭력까지쓰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된다. 혜완에게는 선우라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들은 친구 이상의 감정을 서로에게서 느끼지만 혜완은 선우에게 다가설 수 없다. 이혼녀라는 사회적 위치뿐 아니라, 또다른 결혼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경혜는 화려한 아나운서 생활을 마감하고 한 의사와 결혼한다.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부터 남편은 의도를 시작한다. 이 사실을 경혜는 알고 있지만 현재의 평온을 깨뜨리기가 두려워 그 또한 딴 생활을 즐긴다.

영선은 사려깊고 내성적인 여인으로 그려진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감독과 결혼, 파리로 유학을 떠나지만 그는 남편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두 아이를 낳는다. 남편은 영선이 써준 시나리오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후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영선은 나날이 초라해진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결국 자살미수,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이 소설은 영선의 장례식이 열린 절간에서 끝을 맺는다. 그 어떤 상황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불교의 경전에서 인용한 이 책의 제목에서처럼 혼자서 가는 것만이 해결책일까? 이 소설은 그 어떤 해답도 내려주지 못한 채 독자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하지만 일을 가진 여성이든 전업주부이든 한번쯤은 고민해보았을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책을 던져버릴 수도 없었다.

'이 세상의 반쪽은 여자'이듯이 이 세상의 반쪽 또한 남자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요, 가해자인 것이다.

작가 공지영은 젊은 작가답게 신선한 소재로 우리의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다. 선불리 결론내릴 수 없지만 다시한번 우리의 반쪽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손은희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우성1차APT 103동 802호